

◇원발성 자연기흉 최초 발생 시 흉관삽입술과 흉강경을 이용한 수술적 치료 결과의 비교 분석

김 관민, 김진국, 심영목

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삼성서울병원 흉부외과

배경 및 목적 : 원발성 자연기흉은 그 치료방법이 이미 확립된 상태지만, 최근 들어 고해상도 폐 전산화단층촬영 등의 진단기술의 발달과 흉강경수술의 보편화로 새로운 수술적응증의 요구되는 질환이다. 원발성 자연기흉 최초 발생시 수술적응증이 되지않는 환자에서 흉관삽입술이나 산소흡입 등의 보존적인 치료 결과 재발률이 50%까지 보고되고 있기에 이러한 환자에 흉강경수술을 적용하였을 때 그 타당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.

방법 : 1995년1월부터 1998년 7월까지 삼성서울병원 흉부외과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298명의 기흉 환자 중 원발성 자연기흉 최초 발생 환자 146명을 대상으로 후향적 분석을 하였다. 146명 중 84명은 흉관삽입술 혹은 산소흡입 치료[3명]를 받았고, 나머지 62명은 흉강경을 이용한 소기포 절제술을 시행 받았다. 흉강경 수술은 고해상도 폐 전산화단층촬영 상 소기포가 보였던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.

결과 : _ 흉관삽입술[혹은 산소흡입]을 시행 받은 84명중 남,여는 각각 74,10명이었고, 연령은 25.7 ± 12.3 [중앙값 21.5]세였으며 흉관삽입술로 부터 퇴원까지의 재원일 수는 5.7 ± 2.0 일이었다. 이들 중 32명[38.1%]에서 재발하여 흉강경 수술을 시행 받았다. 재발까지의 기간은 1.3[중앙값]개월이었다. 흉강경 수술을 시행 받은 62명의 남:여 비는 59:3이었고, 연령은 24.7 ± 9.5 [중앙값 20.5]세였으며 수술 후 퇴원까지의 재원일 수는 4.8 ± 3.0 일이었다. 5명[8.1%]에서 재발하였고 이들 중 3개월이내 재발한 경우가 4명이었으며 모두 흉관 재삽입으로 치료되었다.

결론 : _ 원발성 자연기흉 최초 발생 시 모든 환자에서 흉강경 수술을 적용할 수는 없지만, 흉관삽입술 등의 보존적인 치료에 비해 낮은 재발률을 보인다는 점에서 고해상도 폐 전산화단층촬영 상 소기포가 발견되는 환자에서는 확대 적용을 고려할 만하다고 생각되며, 흉관삽입술을 시행한 경우 술 후 2개월간은 재발에 특히 유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.

책임저자: 김 관민(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삼성서울병원 흉부외과) 발표자: 김 관민(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삼성서울병원 흉부외과)